

독도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근거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 그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그리고 역사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여지도》나 일본에서 만들어진 《팔도총도》, 《삼국통람도설의삼국접양지도》 등의 지도나 자료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에 표기되어 있거나 조선의 영토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1900년(광무4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하였으며,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명시하였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

국제법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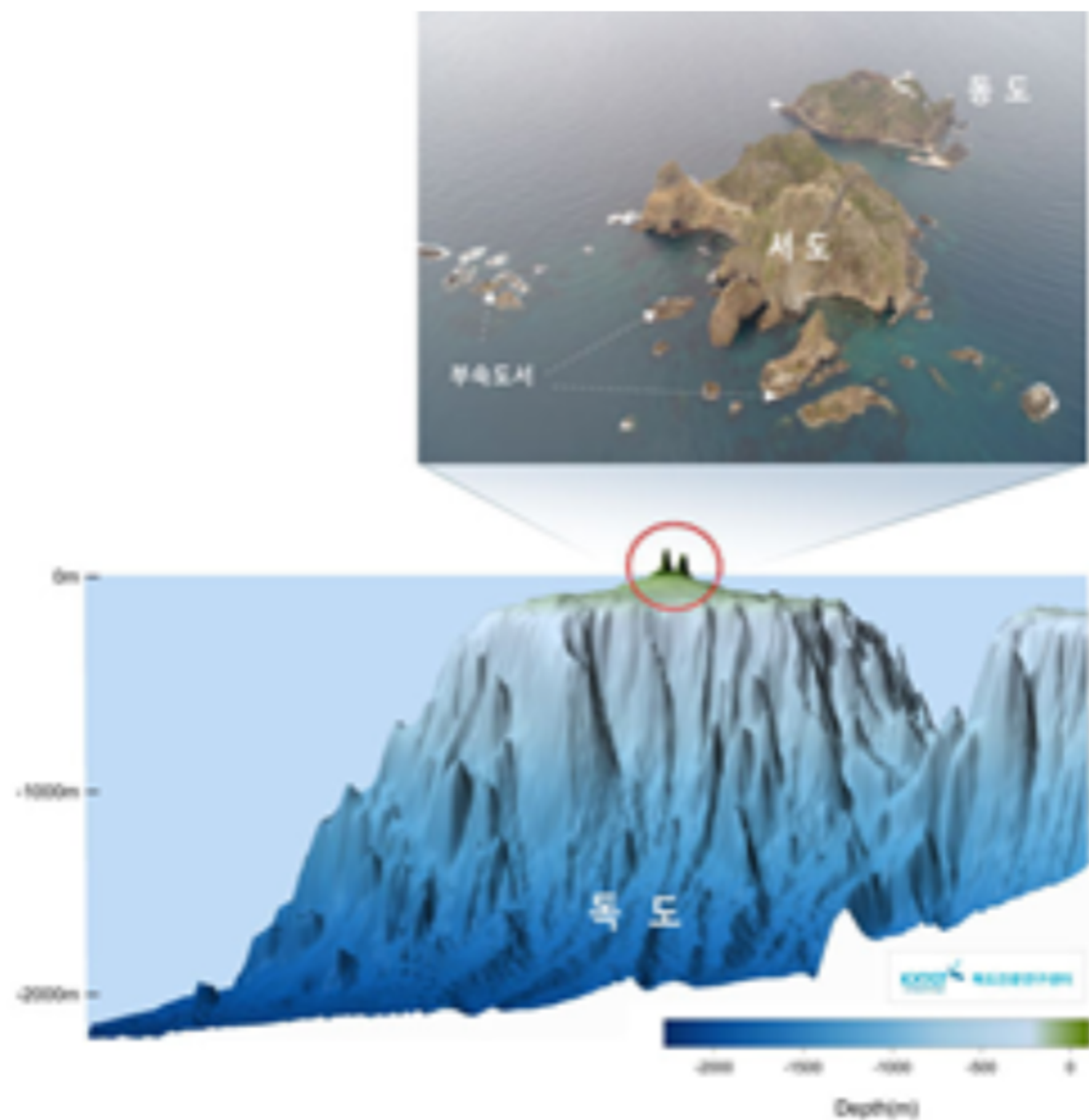
일본은 1905년 2월 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발표할 때까지 독도가 주인 없는 땅(무주지)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점에 의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선점으로 인한 영토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무주지여야 하며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독도는 실제로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 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였으며, 1905년까지 한국에 의해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영유권을 도전받은 바 없다. 또 시마네현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를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또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에 이미 한국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의 현지측량, 토지대장 기입, 해산물 포획 등을 해왔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국가영역으로서 계속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반면에 한국은 6세기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경찰이 독도에 실제로 주둔하여 관리하고 있다.



CHAPTER. 03

독도의 형성과정

지리적 특성



약 460만년전의 동해, 수심 2,000m 해저면에서 화산활동이 시작되어 수백만년에 걸쳐 독도를 형성하였다. 독도 화산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약 250만년전으로, 대규모로 분출된 용암과 입자들이 굳어져 독도해산 위에 독도화산체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이후로도 소규모 분출 및 관입(貫入)의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침식작용이 우세하였고, 수면 위로 드러났던 독도화산체의 대부분이 침식되어 현재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HAPTER. 04

독도의 지형

독도 주변 해저 지형

독도의 지형

독도 주변 해저 지형

독도는 평균수심 2,000m의 울릉분지 북동쪽 가장자리에서 솟아오른 형태이며, 기저부의 직경은 약 25~30km인 원탁형태 해산의 정상부에 형성되었다. 수면 위에는 동도와 서도의 2개의 바위섬과 약 89개의 바위와 암초가 드러나 있다. 동도와 서도는 폭 15m의 얇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다. 독도는 주상절리와 수평 주상절리가 나타나며, 이는 마그마가 분출하여 형성된 조면암, 조면안산암, 조면암맥에서 나타난다. 탕건봉과 그 주변은 조면안산암으로 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주상절리 경관이 보인다. 솟돌 바위와 서도 동쪽사면 중앙부는 조면암맥으로 되어 있으며 수평 주상절리가 보인다. 동도는 최고봉이 98.6m로 정상에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고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동도의 중앙부에는 상단부 100 x 100m, 바닥 50 x 25m, 깊이 55~75m인 함몰부가 있으며, 그 아래 바닷물이 드나드는 동굴(천장굴)이 존재한다. 서도는 최고봉이 168.5m이며, 정상이 뾰족하고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원뿔형 봉우리로 되어있다. 해안 단애에는 동굴이 많이 존재하며 북서쪽 해안의 물골 바위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은 해수 담수화시설의 설치 이전까지 독도 주민의 수원으로 활용되었다.

독도의 지형

독도의 지질도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이루어져있다. 토양은 산 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이며 사질양토이다. 토심은 깊은 곳이 60cm 이상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 30cm 미만 토양입자가 식물뿌리에 밀착되어 있어 토양유실의 가능성은 낮다. 다만, 서도에서 일부 토양유실현상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독도의 토양은 점토, 미사, 모래가 약 1:4: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 토양은 산도가 일정하지 않아 안정된 산림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계절에 따라 pH3.36~8.02로 식생이 크게 변화한다. 이는 집단으로 서식하는 갯가래의 배설물이 토양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의 지형

독도의 지질도

- 조면암(trachyte): 세립의 반상조직을 보이는 분출암. 알칼리 장석과 소수의 유색광물(흑운모, 각섬석 또는 휘석)을 주성분 광물로 포함하며 소량의 소다 사장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알칼리 장석의 양이 감소 하면 래타이트(latite)로 전이되고 석영의 양이 증가하면 유문암이 된다.
- 각력암(breccia): 조립질 쇄설암으로 둥글게 마모되지 않은 각력들이 세립이나 중립의 입자 들과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암석이다.
- 응회각력암(각력응회암: tuff breccia)

화산재, 라필리 및 화산암괴가 거의 동일한 양으로 섞여있는 화산쇄설성암이다.

- 스킨리아(scoria): 다공질이고 불규칙한 형태의 화산탄 크기의 화산쇄설물. 일반적으로 부석보다는 무겁고 어두운 색을 띠며 보다 결정적이다.
- 층상라필리응회암: 주로 라필리 크기의 입자들이 평행한 층리를 보이며 배열되어 있는 화산쇄설성암이다.
- 스킨리아질 라필리응회암: 스킨리아 성분의 라필리가 주성분인 응회암이다.
- 조면안산암(trachyandesite): 조면암과 안산암의 중간 조성을 보이는 분출암. 나트륨 사장석, 알칼리 장석, 흑운모, 각섬석 또는 휘석을 포함한다.



CHAPTER. 05

독도의 기후환경

기온, 수온, 바람, 파고

독도의 기후환경

기후환경

- 기온: 독도의 연평균기온은 14.0°C(2012~2021년)로 같은 기간 울릉도(13.1°C)보다 0.9°C 높고, 서울(13.2°C)보다 0.8°C 높다. 월평균기온은 8월이 25.1°C로 가장 높고, 1월과 2월이 4.2°C로 가장 낮다.
- 수온: 독도 남쪽 연안에 위치한 독도 파고부이의 해양기상월보 자료(2016년~2021년)에 따르면 연평균수온은 17.5°C이고, 월평균수온이 가장 수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26.3°C이며, 가장 낮은 달은 3월로 9.9°C이다.
- 바람: 독도의 주풍은 서남서 또는 남서풍(2012~2021년)이며, 겨울철은 서남서풍이 우세하고, 여름철은 서남서 또는 동남동풍이 우세하다.
- 파고: 독도 남쪽 연안에 위치한 독도 파고부이의 해양기상월보 자료(2016년~2021년)에 따르면 연평균유의파고는 0.9m이고, 월평균유의파고가 가장 높은 달은 1월로 1.2m이며, 가장 낮은 달은 6월로 0.6m이다.